



소리주보

연중 제6주일

2020. 02. 16. (가해) 제2201호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0)



『산상설교와 나병환자의 치유』 코시모 로셀리, 1481~148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대곡본당 주임 | 박철 요셉 신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가운데에 요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니요.’라고 거절한 후 도망을 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요나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함으로써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가져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인데도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 하라는 천사의 말에 ‘예.’라는 대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아니요.’라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어디로 도망가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께 날아오르는 유일한 길은 ‘예.’와 ‘아니요.’의 대답 속에 들어 있다. ... ‘예.’라는 대답을 통해 하느님은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독서 집회서 15장 15절에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앞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 맡기셨다.”(집회 15,14)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예.’하면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아니요.’라고 답하거나 못 들은 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마르 4,23)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을 청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피조물의 다양성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87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1400만 종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약 1억 종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숫자들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얼마나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지 가늠해보게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이러한 다양성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께서 바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피조물을 통해 당신에 관한 것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느님은 서로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피조물 안에 부족한 것이 다른 피조물을 통해 보충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느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피조물의 다양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고유한 가치를 가진 피조

물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저에겐 마치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이루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유리 조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처럼, 피조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충만함을 반영하고 이 세계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지 맙시다.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다채로운 세상을 바라셨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획일화에 집착하거나 흑백 논리에 치우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을 간직한 채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다른 색깔은 서로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그 다양성을 긍정하고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알록달록’ 다른 색깔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그 다채로움을 빛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정성을 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교구 사회사목국장 | 이태우 프란치스코 신부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온 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특별히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보호자분들의 근심은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을 우리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해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나 확진을 받은 분들의 육체적 아픔과 더불어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를 떠나서 현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영혼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이나 그분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경멸, 질타의 눈길 보다는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관심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그분들은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금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자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둘째, 환우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 또한 위기 상황에 몸과 마음이 노출된 가운데 환우들을 돌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주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리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하느님의 따스한 위로와 치유를 기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앞으로의 시간이 개인위생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신과 원망의 다리를 넘어서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모든 분들, 특별히 환우 여러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고성대 베드로 · 고성운 요셉 (?~1816년)



‘여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대(高聖大) 베드로와 ‘성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운(高聖云)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별암(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형 고성대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사람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렸지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 뒤로는 그러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반면에 동생 고성운 요셉은 본래 성격이 착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신앙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였다.

베드로와 요셉 형제는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8개월 동안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언제나 합심하여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열심히 형제는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형 베드로는 한때 고산 저구리(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적오리)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목숨을 보존하려는 유혹에 넘어가 석방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후로는 가끔 “이 큰 죄를 보속하려면 칼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되뇌곤 하였다. 그러다가 아우와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동)으로 이주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1815년 베드로와 요셉 형제는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밀고자를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이때가 2월 22일경이었다. 그들은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러자 경주 관장은 그들 형제와 함께 배교를 거부하는 다른 교우들을 모두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하였다. 대구에서는 또다시 문초와 형벌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17개월이 넘게 괴로운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에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까지 그들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앞서 대구의 감사는 베드로와 요셉 형제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고성대·고성운 형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달을 줄 모르며, 엄한 형벌을 하면서 깨우쳐 주려고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죽기로 한 마음을 목석과 같이 고집하니,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교 후 베드로와 요셉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집회 15,15-20	제 2 독 서	1코린 2,6-10	복 음	마태 5,17-37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2.10(월) | 툇정포교베네딕도수녀회 종신서원
2.11(화) |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및 선교사제 파견식

2.10(월) | 故 나길모 주교(전 인천교구장) 위령미사 참석
2.11(화) |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및 선교사제 파견식

제7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일시: 5월 23일(토) 13:30~16:00 / 대상: 본당 만 65세 이상 신자
신청: 본당 사무실 신청서 작성 후 FAX. 053)250-3078(본당별 신청)
마감: 2월 28일(금) ※ 15팀 선착순 마감, 마감엄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 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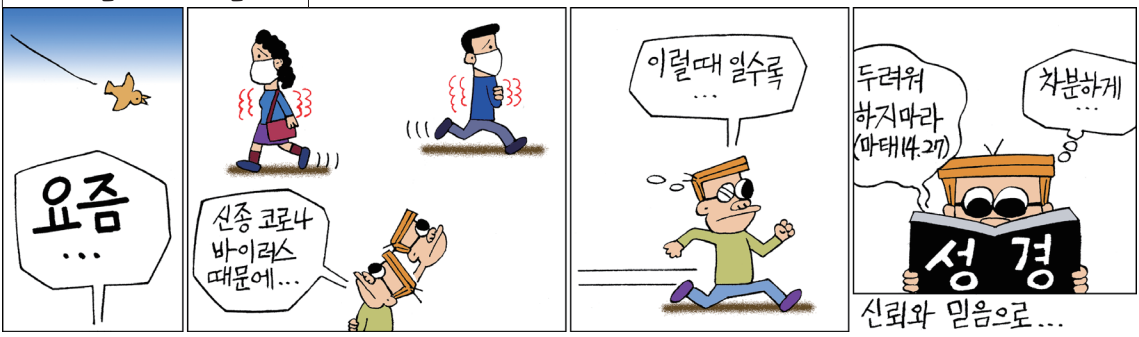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교구 지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구 지침을 마련하였사오니 교우 여러분께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침은
교구 공문 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2월 19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2월 22일(토) 11:00 한티파정의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2월 19일(수) 10: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2.22(토) 15:3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문의: (010)9978-9765

<http://vocation.jesuit.kr>

대구 예수마음기도 무료 피정

일시: 3.16(월) 10:30~16:30

장소: 지산성당 교육관 302호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9620-5603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피정

일시: 3.28(토)~29(일)

4.18(토)~19(일)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문의: (010)3422-758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2.27~29 / 3.5~8 / 3.11~13

3.17~19 / 3.23~26 / 3.29~31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4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일시: 3.14(토)~15(일), 의왕시 아론의집

주제: 돌을 치워라(요한 11,39)

지도: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주최: 미국중남부성령봉사회, 하찬사

문의: (010)2855-9082

(010)3319-9082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3.21(토) 11:00~22(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회비: 5만원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기타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 치유

일시: 3월부터 10주간

시간: 매주 화 10:00~12:30

매주 금 19:00~21:30

대상: 30대~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수업: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대상: 15~30세 남자

문의: (02)828-3600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3.24~26 / 4.3~5 / 4.6~8

장소: 제주성지 7곳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65차 터키, 그리스 순례

일시: 10.19(월)~31(토) 12박 13일

비용: 430만원

주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9454-5648

<http://www.terrasanta.kr>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기초수급자 1명, 실비 1명)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HANTOUR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프랑스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씩'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진구)
수성구 월곡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메주 판매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 해밀원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메주 원장을 만듭니다.
1도(1장) 19,000원

010-9240-7533
유영구(다마스) 최은주(오티리아)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퇴근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대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T. 555-5520

풀무원녹즙 Pulmuone

매일 아침 건강한 습관!

교우 정기 음용 신청 시 사은품 증정
(2만원 상당 유산균 60주)

성명균 (요셉)
053)247-9396 / 010-2822-9396

행사 | 모임

2020학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일시: 2.2(일)~16(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일반 / 등록비: 2만원(1년)

문의: 본당 사무실 /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며, 입시반(고3·대학·일반)은 3월부터 1년간 결석없이 출석해야만 2021학년도 대신학교 지원 가능.

등록한 예비신학생은 입학 미사에 참석 입학미사: 3.15(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성김대건성당 제8회 독서콘서트

일시: 3.19(목) 20:00

주제: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강사: 수원교구 전삼용 신부

연주: 바리톤 강석우, 반주 박지수

문의: 성김대건성당, 742-2504

교육 | 모집

감삼성당 성경대학 모집

일시: 3.5 매주 목 20:00

강사: 박영식(야고보) 신부

문의: 감삼성당, 525-7100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미사·교육: 2.24(월) 10:30~14:30

선교체험나누기: 2.17(월) 10:30~16: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문의: 선교센터, 781-6100

앞산밀복카페 3.2(월) 개강

수 10:30 삶과 환경: 전현호 신부

목 10:30 불교경전읽기2: 최동석 신부

금 10:30 공자와 논어: 최성준 신부

문의: 622-190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2.17(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2020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월)

구약반: (화) 10:00, (화) 20:00

신약반: (수) 10:00, (수) 20:00

심화반: (목) 10:00, (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6520-4627

제32기 대구가톨릭음악원생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일시: 3.17~6.16 매주 화, 주 1회

13주, 총 100시간(선착순 접수)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253-1401

채용 | 안내

가정형Wee센터 차림사(조리사) 채용

조건: 월요일~금요일 9:00~18:00

업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사와 다과 준비

마감: 2.20(목) / 접수: 방문접수

문의: 474-1985

바오로딸(동성로)서원 임시 이전 안내

바오로딸(동성로)서원이 개축을 하게되어 휴점합니다. 공사기간동안은 범어대성당 바오로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일시: 3.9(월)부터

문의: 425-5185 / 744-5185

갈발성당 건축과 50년의 기도

정성껏 만든 영상입니다.

검색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어: 갈발성당

문의: (010)6835-9594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 1588-5335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이혜미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